

「(가칭)설계공모의 기술(매뉴얼)」 서면 자문의견서

- Page 10 ○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인 경우 설계공모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. 제외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
- Page 12 ○ 신진건축사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
- Page 21 ○ '공공건축 관리자'와 '설계자의 역할에 대해 각각 표현하면 이해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.
- Page 23,60 ○ 심사 절차에서 2차 PT발표심사가 필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.
(설계자가 노출되는 이유로 구에서는 서면심사로 진행하고 있음)
- Page 25 ○ '기본계획 수립 단계, 현장조사 사전 실시'에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는 어떤 절차를 의미하나요? '건축기획업무'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?
- Page 26 ○ 공공건축 관리자(PA) 급여 기준의 적정 금액 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
(자문 및 심의는 2시간 내외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고, PA의 역할이 설계공모부터 공사단계까지임을 고려할 때 여러 차례 자문 및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)
- Page 27 ○ 공공건축 관리자 설명 하단 주의 사항에 '위촉 시 보안사항 이행을 위한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수렴'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
- Page 34 ○ 운영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, 심사위원 수당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
- Page 36 ○ '사전절차 이행(h)'이 '설계공모의 시작(a)'이전, 첫 번째 순서에 설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.
- Page 44 ○ 구 추진 시 현장설명회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.
- Page 46,52 ○ 구 추진 시 서울시 공고 요청과 함께, 설계공모 참가 등록 및 관리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 (디지털 심사장 사용 예약 포함하여 일괄 진행이 가능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.)
- Page 73 ○ '총괄건축가 - 당선안 인계', '총괄건축가 주관' 에서 총괄건축가는 자치구 총괄건축가를 의미하는지, 별도 지정된 총괄건축가인지 궁금합니다.
'총괄건축가'는 공모 진행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.
총괄건축가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

서명 : 최 연희

